

건축, 그 내밀한 에우리디케의 시선

『복합체』-건축의 시선

장윤규 지음, 간향미디어랩, 2005

안치윤 ·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 연극평론가

입장(position)이란 세워 놓는 일이며 드러내는 욕망이다. 건축과 건축가의 입장과 욕망이란 무엇인가? 『복합체』(간향미디어랩, 2005)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첫 장부터 건축과 크게 동떨어져 보이는 오르페우스의 시선으로 건축하는 입장을 말하고 있다. 시인 오르페우스의 노래는 신과 인간을 매혹하지 않았던가,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살려내기 위하여 지옥에 내려가 노래로 지옥의 신들을 매혹시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채 뒤를 돌아다보아 아내를 다시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게 한 시인이 아니던가, 그것도 아득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 오르페우스의 시선이 건축(가)의 시선이라니.

이 책은 한 건축가의 입장이 오르페우스의 시선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다보는 곳은 내밀한 어둠이다. 저자가 지닌 건축의 시선은 오르페우스의 시선과 일치한다. 그것은 곧 건축의 본질을 향한 시선이다. 건축의 감추어진 본질, 도달할 수 있는 극단이 그곳에 있다. 이 책에는 건축의 본질, 도달하고자 하는 심연과 같은 건축의 극단이 저자의 디자인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그것은 건축 디자인을 통해서 "가상의 현실계를 실현하"(11쪽)는 것이다. 본질과 극단으로 내려가 다시 현실로 이끌어 오는 작업이 곧 건축이라고 말한다. 이쯤에서 생성되는 것이 "기설의 위험성"(11쪽)인데, 이는 본질과 극단에서 건축의 형태, 모양 그리고 현실성을 부여하는 작업을 뜻한다.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향해 몸을 돌리자 에우리디케는 사라진다. 이처럼 저자는 뒤돌아보는 시선으로 자신의 작품을 해체한다. 그 순간 건축이 하나의 그림자로 되돌아간다. 건축의 본질이 건축 너머의 것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의 본질이 건축의 비본질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은 저자가 "시간을 가늠러 올라 서로의 영역을 통합하면서, 본질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31쪽)고 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저자가 고정된 건축을 배반하고, "금기와 우연"의 시선을 통하여 새로운 건축의 충만함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는 말한다. "연속된 창조적 고리를 형성하는 오르페우스의 시선을 선택할 시기에 나는 서 있다. 위험성과 새로운 실험성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우리는 어디로 항해를 시작해야 하는가"(11쪽)라고. 그 해답은 "경계 사이를 오가며 만들어지는 소통의 텍스트"(20쪽)라는 뜻을 지닌 책 제목인 '복합체'이다. 다분히 오르페우스의 노정을 따라가야 이해할 수 있는 '경계 사이'라는 뜻은, 비유하자면, 우리가 보는 낮의 건축이 아니라 밤의 건축, 그러니까 건축이 감추고 있는 또 다른 건축의 직시일 터이다. 그것이야말로 오르페우스가 금기를 어기며 뒤돌아본 행위이며, 건축이 가야 할 불가피한 작업(의 방향)이다. 보이지 않는 건축은 뒤돌아보지 않았다면 결코 볼 수 없었던 에우리디케의 모습과 같다. 여기에 저자가 지닌 건축의 자유롭고 생생한 살아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그래서 저자는 복합체의 존재가치를 '보이는 방식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다'(21쪽)라고 말한다.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보았을 때 에우리디케는 산산이 흩어지고 사라진다. 그것은 저자에게 "모호함"으로 인식된다. 새로운 건축의 모호함, 이를 위하여 저자는 한 장르에 체류하지 않는다. 그가 보는 건축의 본질에는 "불확실함이 공존한다. 도시 구조의 경계, 영역간의 경계, 타자와의 경계, 해석의 경계, 이해의 경계...(중략)...이 모든 경계를 모호하게 설정"(32쪽)하는 요소들이 가득하다. 그 최대값은 "건축을 떠나서 보았을 때, 새롭게 건축이 인식될 수 있다"(32쪽)데 이르는 것이다. 건축에 시간이 있다면, 저자는 정해진 시간을 참지 못한다. 그 시간에서 벗어나 아예 시간을 부채의 것으로 만들고,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한다. 그곳에 이 책이 주는 건축의 영감이 있다. 그것은 곧 "내가 지각하지 못한 세계, 가능 세계, 타 영역을 매개로 하여 건축에게 주어지지 않은 세계를 발견"(32쪽)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은 확신의 정점이 아니라 불확신의 자리이다. "연금술과 같이 마술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신비함과 위험성을 내포하"(33쪽)고 있는 건축의 영감이다. "복합체의 요소적 결합은 기존의 건축적 공간의 결합과 변위를 가부하는 결과를 포함한다. 변형은 끝도 없는 고리처럼 다른 변형을 유도하고 있다."(42쪽) 건축이 소실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건축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것은 건축을 상상하는 것이기보다는 추억하는 행위이며, 건축의 미래로 나아가려는 것이기보다는 건축의 기원으로 되돌아가려는 시선의 산물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

